보도자료

चित्रा स्पर्धानः याद्ये निष्यं भी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 22.(월) 11:00, (지면) 2024. 1. 23.(화) 조간

배포 2024. 1. 22.(월) 06:00

선박 증서 14종, 2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 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이용자 편의성 크게 높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월 1일(목)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행하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증서 14종*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박 증서를 조회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큐알코드(QR Code) 스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증서의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 선박국적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국제톤수증서 등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운영에 앞서 업계 등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3일(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기능을 보완개선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증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전자증서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선박 내 관련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 종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이며, 이 외에도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선박 증서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 누리집(www.gicoms.go.kr/vecs)에서 확인하거나,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 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해사안전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문승록 (044-200-5851)





선박 전자증서 시스템 이용방법





선박전자증서의 유효성과 진위여부를 알고 싶어요.

방법 1. 고유식별번호/증서번호 입력



메뉴명

방법 2. QR 코드 스캔



▶ 휴대폰 카메라 준비 - 증서의 OR코드 스캔 - 증서 파일 검증 화면

방법 3. 증서파일검증

보유하고 계신 전자증서 파일(PDF)을 양식에 첨부하여 진위 여부 확인 및 전자 증서의 유효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증서파일검증]클릭 - 보유 파일(PDF) 업로드

서명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국내/국외 언제 어디서든 선박전자증서 조회 시 미리보기를 통해 증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서명정보에는 서명자, 증서유효기간, 선명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